

北 언론 “전단 살포 안 멈추면 남북 파탄”

노동신문 해설 “총포사격 보다 최대최악의 도발”
북한 단체, 항의집회 잇따라…나흘째 여론몰이

북한이 8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군사도발보다 더 엄중하다며 남북관계의 완전 파탄을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동족 적대시 정책이 몰아오는 파국적 후과”라는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 “(전단 살포는)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중상 모독하는 행위는 가장 첫째가는 적대행위”라며 “그것은 사실상 총포사격 도발보다 더 엄중한 최대최악의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측의 전단살포 ‘방치’로 “그들이 곱씹던 약속이라는 것들이 전부 위선이고 기만술책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당국의 ‘약속 불이행’을 주장하며 배신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가 “북남관계 파국의 도화선”이 됐다고 “남조선 당국은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며 “북남관계가 총파탄될 수도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내고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경고했다.

북한은 또 이날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나흘째 대대적인 여론전을 이어갔다.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산하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전날 남측과 인접한 개성시

의 문화회관 앞마당에서 항의의 군중집회를 열었고 남측 정부와 탈북자를 규탄하는 성토문도 발표했다.

사진 속에서 집회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쓴 채로 주먹을 불끈 쥐어 팔을 뻗쳐 올리며 남측을 규탄하고 있다. ‘전주에 용납 못 할 최악을 저지른 괴뢰패당을 즉당쳐버리자!’라고 적힌 붉은 대형 현수막도 눈에 띈다. 지난 6일 평양시 청년공원아회극장에서

도 청년학생들의 항의의 군중 집회가 열렸고, 앞서 지난 5일에도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과 평양종합병원 건설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규탄 군중 집회를 열었다.

아울러 동신문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에 접한 각계의 반향’이란 제목으로 장혁 내각 철도상을 비롯해 고위간부와 주민의 격한 반응을 소개했다. /연합뉴스



백악관 도로 복판에 ‘경찰 예산 끊어라’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도로 한복판에 등장한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구호 옆에 ‘경찰 예산 끊어라’(Defund the Police)는 구호가

/연합뉴스



경제·코로나 대책 불만에 38%…재집권 후 최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이 아베 총리 재집권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닛케이)과 민영방송 TV도쿄가 5~7일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밝힌 이들은 응답자의 38%였다. 지난달 8~10일 조사한 것보다 11% 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안보 법제 개편 추진으로 여론이 악화한 2015년 7월(38%)과 같다.

이는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은 9% 포인트 상승한 51%였다. 내각 비판 여론이 지지 여론보다 많아진 것은 올해 2월

에 이어 약 4개월 만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 중 30%가 ‘지도력 부재’를 이유로 꼽았다. 아베 총리의 지도력이 없다는 반응은 지난달(35%)보다는 줄었으나 올해 1~3월 조사에서 10%대였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많다.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이 계속해서 유권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5~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0%로 지난달 8~10일 조사 때보다 2% 포인트 떨어졌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 포인트 상승해 50%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美 대선 여론조사, 트럼프 약재 속 3차례 연속 50%대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50%대의 지지율을 잇달아 달성, 이 기세를 11월 대선 승리까지 이어갈지 주목된다.

여론조사 지지율 50%는 4년 전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한번도 넘지 못한 것으로, 바이든에게는 청신호인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위기 신호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이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촉발된 미 전역의 항의 시위로 홍역을 치르는 등 재선거도에서 잇따라 강력한 ‘약재’에 직면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여러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양상이 이어져 온 가운데 단순히 지지율 격차보다도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이든이 기록한 50%대의 지지율이라고 CNN방송은 7일(현지시간) 평가했다.

바이든은 최근 1주일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3차례 50%대 지지율을 달성했다.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조사에서 53%(트럼프 43%)가 나온 것을 비롯해 몬머스대 조사에서 52%(트럼프 41%), NPR과 PBS방송 조사에서 50%(트럼프 43%)를 나타냈다.

CNN은 “지금은 트럼프가 이미 바이든과 함께 하는 유권자들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트럼프의 길은 어려운 것”이라며 재선 성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35〉 악비

악비(岳飛, 1103~1141)의 자는 봉거(鵬舉)이며 상주 땅음현 사람이다. 남송초 금나라에 저항한 명장이다.

가난한 농가 출신이다. 부친 악화는 어렸을 때 홍수에 의사하고 모친과 함께 하북성에 정착했다. 1122년 군에 들어갔다. 무용이 출중해 종택의 참모가 되었다. 금나라 군대와 싸움에서 전과를 거두어 빨리 승진했다. 소년 시절 취침전에 읽은 손자병법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남송 고종 건원 원년(1127) 수도를 강남으로 옮기는 방안에 반대해 관직을 잃었다. 이후 종택을 이은 두충의 참모가 되어 장강을 도하하는 금군을 막았다. 지휘관들이 도주하자 비장하게 말하기를 “우리는 국가로부터 두터운 은혜를 입었다. 죽을

악비는 군대를 동원할 때마다 군량미가 모자라 애를 먹었다. 경서와 호북 일대의 반란이 편정되자 백성으로 하여금 영전(營田)을 시작하였다. 백성들에게 소와 종자를 지급하고 식량을 지원했다. 이로써 군량미 걱정을 크게 덜게 되었다.

금이 남송과 맺은 맹약을 어기고 소흥 10년(1140) 종필의 지휘하에 대거 남침하였다. 악비는 금군과 조주, 완정현에서 크게 승리했다. 연이는 싸움에서 이겨 진주, 정주를 회복하고 하남부 남성군을 수복하였다. 여세를 몰아 종원을 되찾자는 북벌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재상 진회는 금과의 회의를 위해 고종에게 권해 철군을 명령했다.

악비가 선무사로 승진하자 한세충과 장준이 이를 시기하였다.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겸양의 자세를 보였지만 답

남송초 명장…반란죄 누명에 희생

이 있을 뿐 다른 선택은 없다. 이 문을 나서서 도망가는 자는 모두 참한다.”

금의 장군 종필이 임안을 공격하자 여섯 번 싸워 모두 승리했다. 이후 금군은 “악비 장군의 군대가 왔다”는 말만 들으면 다투어 투항했다. 1130년 금군이 상주에 침공하자 4번에 걸쳐 모두 이겼다. 청수정 싸움에서도 금군을 대파해 금군의 시체가 15리에 걸쳐 널려 있었다. 종필이 건강을 점령하자 우두산에서 내려와 금군을 격파해 건강을 회복했다. 악비는 상소문을 올려 청하기를 “건강은 국가의 요충지입니다. 마땅히 군대를 엄선해 굳게 지켜야 합니다.”

1131년 이성이 난을 일으켰다. 고종은 장준이 악비와 함께 토벌토록 명했다. 악비는 붉은 비단으로 깃발을 만들어 ‘뽕’이란 글자를 써넣었다. 적장 마진을 대파했지만 이성은 도주했다. 다음해 조성이 난을 일으켜 도주와 하주를 침략하자 악비에게 명해 토벌토록 하였다. 1133년 고종은 그를 불러 금대(金帶)를 착용토록 하고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악비(精忠岳飛)’라고 쓴 깃발을 하사했다. 또한 앞으로 군대를 출동시킬 때마다 반드시 이 깃발을 앞세우도록 명하였다. 1134년 청원군절도사에 임명되었다. 1135년 형호양양제치사로 임명되어 양태 무리를 토벌하였다.

신이 없었다. 특히 장준과 사이가 크게 틀어졌다. 재상 진회, 금사종 범돈은 대금 회의파였다. 여러 장군들이 병권을 장악하고 있어 통제가 어렵다고 보고 장군들에게 추밀원의 관직을 주는 대신 병권을 회수토록 하였다. 장준과 한세충은 추밀사에 악비는 추밀부사에 임명되었다. 장준은 악비의 부장인 왕귀와 왕준을 구슬려 “악비의 부장인 장현이 음모를 꾸며 악비가 다시 군사지휘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무고하도록 했다. 장준은 악비 부자를 체포해 투옥하였다. 진회는 방의선을 사주해 “악비 부자가 장현 및 장귀에게 서신을 보내 허위로 적들이 침공한다고 경고토록 해 조정을 움직이려 했다”고 죄목을 꾸몄다.

악비는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회는 여러 조작된 증거로 악비는 사형에 처하고 장현과 악비 아들 악운은 저자거리에서 주살하였다. 재산은 몰수되었다. 남은 가족은 유배되었다. 한세충이 진회에게 사정을 묻자 “악비의 아들이 장현에게 보낸 서신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으나 그일 자체는 반드시 있었을 것이요”. 한세충이 말하기를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말로 어찌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겠소” 악비가 죽자 천하가 안타까워했다. 효종때 무목의 시호가 내려졌고 영종때 악왕(鄂王)에 추봉되었다.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